

생활속의 문화클럽활동 지원방안 세미나 자료집(7월 15일)

생활속의 문화클럽활동 지원방안

- 주제 : 생활속의 문화클럽 활동 지원방안 모색
- 일시 : 2008년 7월 15(화) 14:00 ~ 17: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력개발원 5층 대강당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생애철수의 민화특별촬영부 지원과

2008년 7월 15(화)

민화체애권위부 · 한국민화진흥센터

목 차

□ 발제자

1. 생활속 문화클럽활동 활성화 방안(김세훈)..... 1
2.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박승현)
-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10

□ 토론자

1.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전고필)..... 34
2.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은 새로운 정책인가(김혁수)..... 37
3.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방안(김응진)
-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문화자원봉사자회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39
4. 문화예술생태계의 들꽃 - 아마추어 문예동아리(양원모)..... 43
5. 삶과 결합한 예술경영을 위하여(전수환)..... 46
6.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례(이경숙)..... 48
7.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유유미)..... 51
8.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소고(김현주)..... 53
9.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방안의 의미에 대해(박홍순)..... 55

발제 1 : 생활속 문화클럽활동 활성화 방안

김세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문화복지 정책과 생활속 문화활동

- 정부에서는 1990년대 중반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 제고를 목적으로 문화복지 정책을 문화정책의 주요 지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 사회복지가 주로 경제적, 물질적 차원의 국민복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문화복지는 정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국민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함
- 이에 따라 생활속에서 국민 누구나가 문화적 활동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문화의집’ 건립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문화의집은 문화복지 정책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주요 목표는 일상 생활가까이에서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권’ 문화향유 환경 조성에 두어졌으며, 단순히 감상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악기 등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등까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초기 단계의 문화복지 정책은 문화의집 등을 중심으로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향수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이 세분화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되는 경향을 보임
 - 참여정부 시기에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면서 문화복지 정책에서 사회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음
- 그러나 초기 구상단계에서 제시된 바 있듯이, 문화복지는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문화활동에 있어서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두어져 온 만큼, 현 단계에서 전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문화복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복지에 대한 재점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사항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편하고 쉽게 문화적 환경(또는 문화활동)에 접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속 문화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 곧, 문화복지 정책의 핵심 요체는 생활속 문화활동 활성화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2. 생활속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정책

1) 기존의 문화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 기존의 문화활동 지원 정책은 크게 전문적 수준의 예술활동 지원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수 지원의 두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일반인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문화향수 지원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주로 고급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 지원 위주의 형식이 많았으며, 또한 일상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특화된’ 공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강조 및 지원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수준의 activities 들은 정책적 지원의 범주에서 주목하여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러한 정책 집행의 결과, 문화향수 지원정책은 기존에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그룹과 취약계층으로 문화적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크게 구분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일상적 삶의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체험 및 혜택에 있어 정책체감도가 높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2) 생활속 문화활동 지원의 정책적 의미

-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문화정책이 다루는 범주와 영역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생활속 문화활동은 문화정책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인 문화복지와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는 ‘문화복지 차원’에서의 의미와 더불어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갖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함
- 문화복지 차원에서 볼 때, 생활속 문화활동은 문화예술활동이 전문예술인에 의해서만 수행되거나 전문예술공간이나 장소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문화예술활동의 창작자와 향유자가 될 수 있으며, 일상 속의 다양한 활동들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음을 의미함. 이것은 기존의 문화향수 지원정책이

다분히 고급문화의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의 민주화’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생활속 문화활동 지원은 궁극적으로 누구나 문화적 창작자와 향유자라는 측면에서 ‘문화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볼 때, 생활속 문화활동 활성화는 기존의 몇 가지 중요한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

- 일상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 그동안의 문화정책이 시설정책 차원에서는 대규모 전문시설 건립 중심이고, 인력정책에서는 전문 또는 매개인력 육성 중심,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중심정책이었다면, 문화클럽 정책은 중소기업의 준전문, 생활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고, 인력측면에서는 아마추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어촌지역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 중산층 강화 : 생활속의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은 기존의 문화양극화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기존의 양극화 대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면 이 정책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중간계층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이나 직장 등에서의 공동체성 강화 : 생활속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정책은 지역이나 직장 등을 중심으로 일상적 삶의 경험이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향하며, 이것이 지역이나 직장에서의 상호 소통구조를 확대시킬 수 있음
- 관객개발 효과 : 일상속에서의 문화활동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호감도, 친근감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관객을 개발하는 효과를 불러옴
-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자원성, 자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속 문화활동은 참여자들의 개인적 만족감 향상을 지향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사회에 참여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역할 및 성취감 또한 고취시킬 수 있음

영국 자원봉사 및 아마추어 예술 활동 현황 보고서 발표¹⁾

- 영국 문화부(DCMS, 문화 미디어 체육부)와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에서는 영국의 자원봉사 및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난 6월 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음
- 이 보고서는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자발성과 자생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참여자 개인에게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의 관객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
- 그동안의 예술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종종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간과되어 왔는데 이는 예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
- 결론적으로, 아마추어 예술활동과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더 큰 정책적 관심이 주어져야 함을 강조

3. 문화 동아리 활동과 문화클럽

- 다양한 유형의 생활속 문화활동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련 동아리 활동들을 들 수 있음
 - 지역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는 적지 않은 수의 동아리 모임들이 참여하고 있음
 - 이러한 모임들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조직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적이라는 특성을 보여줌
- 문화관련 동아리 활동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주요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간의 자발적 활동에 공공영역이 재원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영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추어 활동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주목의 대상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에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

1)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 뉴스레터 11호

○ 문화관련 동아리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속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며, 이런 점에서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개개의 문화동아리들을 예산 등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일상 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등을 조성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이와 더불어,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준전문/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으로 발전하기를 원할 경우, 이러한 수요를 정책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방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문화클럽’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음. 문화클럽은 자생적, 자발적, 자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관련 동아리가 보다 전문화된 활동으로 자신들의 activities를 확장하기 원할 경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임

- 문화클럽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자생적,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아마추어 및 준전문적 수준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클럽에 대한 지원은 원할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주거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4. 문화클럽 활성화 방안

1) 문화클럽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 아마추어 문화활동 지원정책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 속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케 함으로써 문화활동과 일상생활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차적으로는 문화클럽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활동들이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성 회복에 영향을 미치도록 목표할 수 있음

○ 부차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 추진 방식

- 이 사업의 핵심은 ‘몇 개의 문화클럽이 조성되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한 환경을 얼마나 많은 문화동아리들이 활용하였는가’에 있음
 - 이는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기존 동아리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예를 들어,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의 형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자발성을 훼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업모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받은 단체들로부터 오히려 비판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를 위해서 이 사업의 1차적 과제는 공간지원에 두고, 2차적으로 교육 및 지역참여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공간 지원은 기존 동아리들이 ‘클럽’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일 것임
 - 교육 및 지역참여 지원은 ‘클럽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동종의 동아리들이 모인 클럽은 교육지원과 지역참여활동 지원이 가능하고, 이종의 동아리들이 모인 클럽은 지역참여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여기에서도 성과지표는 ‘클럽수’가 아니라 ‘지원 교육을 받은 수’나 ‘지역참여활동을 한 수’ 등이 될 것임

3) 추진 방안

-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공간지원 사업: 문화예술관련 동아리들의 연습 및 모임공간 지원
 - 교육지원 사업: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도록 강사 지원
 - 지역참여지원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클럽 문화활동 지원

-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음

▷ 공간지원 사업

- 정책 및 제도로 접근할 사항으로, 문예회관연합회, 문화의집협의회, 문화원연합회, 주민자치센터(행안부)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시설의 개관시간 연장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연장이 아니어도 동아리들이 공간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무엇일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지원 사업

- 문화예술교육강사(사회문화예술교육)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역참여활동 지원 사업

- 이 사업만이 직접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됨. 이러한 사업지원은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직접지원 방식을 차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단계별 추진 계획

- 초기단계에는 3-4곳의 시범 운영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 공공-민간 합동의 한시적인 문화클럽 운영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을 총괄적으로 구상·추진토록 함
- 선정된 시범 지역 또한 공공-민간 합동의 한시적인 문화클럽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함
- 시범 실시단계에서는 위의 공간지원 사업과 교육지원 사업만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연말에 ‘연합 문화예술동아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확대 운영방안 마련

5. 직장 문화클럽 조성

○ 직장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핵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 등으로 문화적 환경이나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취약하며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의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장을 통한 문화활동 체험 기회 제공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활동에 접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문화에서 창의적 사고가 중요시됨에 따라 문화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문화활동 활성화는 이전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직장이 민간 영리영역이고 이러한 영역에서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개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적절한 문화적 경험은 업무에 있어서의 창의적 사고의 계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직장내 문화활동 활성화는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스웨덴 베스테르노를란드 주의 크로쿠스 프로젝트

- 스웨덴 베스테르노를란드 주에서는 2008-2010년까지 ‘크로쿠스’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이 프로젝트의 기본 인식은 노동현장에서의 문화활동이 노동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있음.
- 베스테르노를란드 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문화활동이 위에서 가정한 효과들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입증될 경우 이를 정책수립의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직장내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문화복지정책 차원의 우리나라의 접근과 일면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직장내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해 볼 수 있음
 - 기업문화클럽은 초기단계에서는 문화활동 동아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업 내·외의 동종 또는 이종 문화활동 동아리들이 연합하는 구조를 가질 경우 이를 클럽활동으로 규정
 - 기업문화클럽 조성은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기회가 적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문화활동을 체험케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음
 - 사업의 주 내용은 1차적으로는 기업내 문화관련 동아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관람, 체험 모두 포함), 2차적으로는 동아리간 연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또는 지역간에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임
 - 기업내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은 기업과 정부가 공동예산을 배정하여 과거 사랑티켓과 같은 제도를 도입, 기업문화동아리 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를 가진 그룹에

일정한 가격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시범단계에서는 메세나를 통해 협력 기관들을 선정하고 이 기관들은 직장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유도
- 초기 단계에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 효과를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감케 할 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

발제 2 :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1. 문화예술의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예술은 고대부터 인류가 축적해왔던 가장 높은 정신적 창조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 예술과 삶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만들고, 춤추면서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 창조적 예술행위가 생활과 함께 수평적으로 녹아있었지요.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예술은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예술가’가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객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술의 질은 높아졌으나 일반시민들은 예술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예술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정책은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한 축은 인류가 축적해 온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예술을 계승·발전시켜 그 질을 높여내는 것입니다. 예술가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한 축은 모든 사람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향유하며 자신에게 맞는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삶 속에서 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향수 기회확대’라고 표현되어 온 정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축을 달리 표현하여,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 제고’와 ‘접근성(接近性 Accessibility) 확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축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류가 축적해 온 예술의 성과를 누리며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정책은 두 축이 만날 때 온전히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문화예술이라는 정책수레는 그 내용물을 제대로 싣고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은 과도하게 수월성 바퀴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월성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창작할 수 있는 좋은 풍토가 되려면 그들에게 창작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 못지않게 예술을 소비할 관객층을 키우고, 예술이 공기와도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이 배출되고 인류의 유산으로 남을 걸출한 작품들이 탄생한 사례를 보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예술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성남문화재단 5대 정책사업 :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성남에는 어딜 가나
문화클럽의 모임이 있다네.
그 모임에는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주인공이 없다네.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어 준다네.
시민들은 100년 후를 노래한다네.
예술시민의 도시, 성남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창조가들이 탄생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랑방 문화클럽이 꽃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네.

이 시귀는 성남의 문화클럽들이 처음 만나 ‘클럽파티’를 여는 개막시(開幕詩)로 낭송된 후 클럽들이 모임때면 항상 함께하는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여기에 멋진 곡을 붙여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갈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클럽파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예술시민의 도시가 가능할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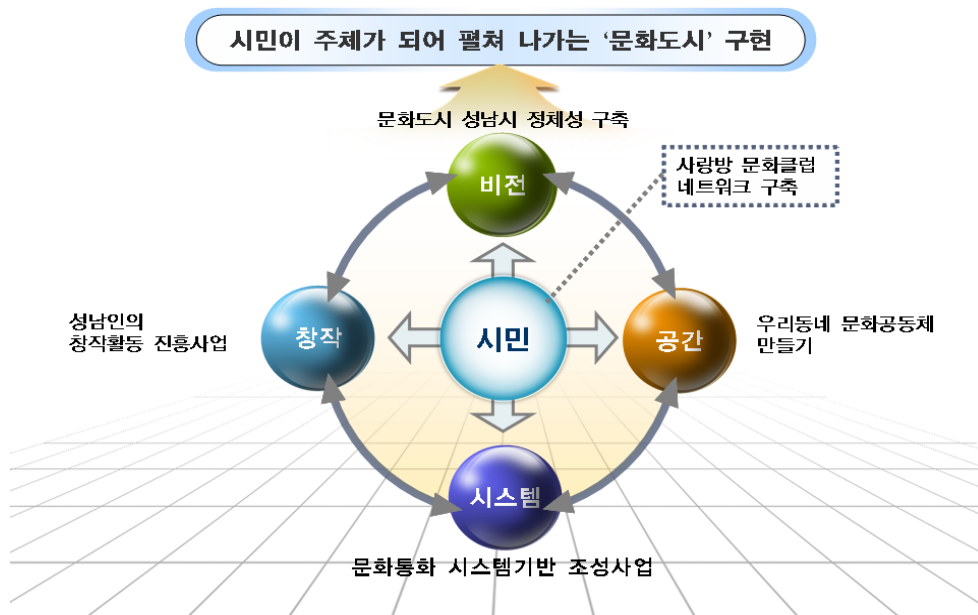
“그 지향의 알맹이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가 축적해온 예술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술은 모두의 것이 되고,
인간의 일상생활을 고양시켜 ‘인간다운 삶’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술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예술가는 더욱 빛납니다.
예술가는 이제 시민 속에서 탄생하게 되고,
그 예술은 다시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고양시켜 내고 삶을 아름답게 끌어올려 줍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예술가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위해서 사랑방 문화클럽 정책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5대 정책사업이라는 한 묶음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방 문화클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대 문화정책사업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축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어떻게 구도를 짜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면, 가로축은 구체적인 동네

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나가는 실천적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축과 세로축은 어디까지나 좀 더 강조한 방점의 문제이지 핵심은 두 가지 축의 결합점입니다. 세로축과 가로축 어느 것이든 그것을 설명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시민'을 통해서부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핵심 골자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스로 끊임없이 창조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출발점은 어디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동호회라고 봅니다. 왜 문화예술동호회냐, 문화예술동호회는 일반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량을 갈고 닦아 예술가로 가기 전의 다양한 모습을 펼치며 무수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더불어 공동체 성격을 지닌 새로운 매체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자 또는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탄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점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자발적인 문화예술동호회가 스스로 창조적 주체로 서서 정책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성남문화재단 5대 문화정책사업 개념도>

세로축 시민의 핵심사업은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성남의 문화클럽 조사는 문화시설과 주민자치 및 복지시설 등 1,057개의 기관 중 373개를 전화설문(응답율 35%)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1,103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 주요 기관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를 추정(청소년, 대학생 제외)해보면 약 3,964개의 수치가 나옵니다. 성남은 가히 문화클럽의 보물창고라고 할 만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 중 활

동이 왕성한 320개의 문화클럽을 뽑고, 또 그중 30개의 핵심문화클럽에서부터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110개의 핵심클럽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방’은 서양에서의 ‘살롱(salon)’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공간’ 명칭입니다. 우리의 동네에서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무수한 활동들이 엮어져 나갔었죠. 성남아트센터는 그야말로 성남 시민의 큰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태평4동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에서는 ‘문화놀이터_아트클럽’과 ‘움직이는 사진관’이라는 두 개의 아담한 ‘사랑방’을 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0개의 핵심문화클럽 중의 하나인 ‘무한포커스’라는 사진 동호회는 ‘움직이는 사진관’에서 태평4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 드리며 왕성한 활동을 한 바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랑방’을 문화클럽과 연계하여 현대의 생활공간 속에서 ‘문화통화’를 활용하여 서로 품앗이처럼 나눔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로축의 두 번째 사업은 ‘비전’입니다. 그 사업명을 우리는 ‘문화도시 성남시 정체성 구축’이라 하였는데, 이는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을 세워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성남시는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1960년대부터 이미 서울의 인구 분산과 일부 도시 기능을 분배 받아 개발된 일종의 계획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년대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정착지로 개발된 현재의 본도심(중원구, 수정구)과 8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 강남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도심(분당구)은 이주하게 되는 집단의 성격이 상이하어,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이원화된 도시 구조를 갖게 된 것이 도시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성남시는 절실하게 신·구도심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시 정체성 확보 문제와 문화 정책을 연관 지어 생각해야 했고, 이를 성남문화재단 정관에 명시²⁾ 함으로써 성남문화재단 문화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기층 정서와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추상적 개념이기에, 한 두 개의 사업을 통해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도시의 정체성이란, 도시민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도시의 무엇을 도시 외부에 알리고, 도시의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도시를 가꾸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의 문제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도시 정체성의 문제를 곧 주체적 문화 시민 육성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런 철학적 배경을 근간으로 주체적 문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문화적 공동체를 설정하였으며, 이것의 중심체가 사랑방문화클럽입니다. 동시에, 시민을 주체적 문화 시민으로 육성하면서, 이들이 향후 주인으로 서게 될 공간을 동네로 보고 5개 유형의 동네(골목길, 아파트, 공단, 상가, 시장)에 예술가가 함께 들어가 일상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발점으로 45개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준비도 함께 펼치고 있는 것이죠.

2)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장, 제1조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창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라고 기관 설립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전’ 사업은 도시계획과 긴밀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3단계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2006년~2008년)의 3개년계획, 2단계(2009년~2013년)의 5개년계획, 3단계(2014~2020)의 7개년계획은 각각이 핵심적인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한 것이 단계마다 성취해야할 목표와 요구되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1단계 3개년의 핵은 밀착사업입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활동할 사랑방 문화클럽과 시범동네의 주민주체가 얼마나 튼실히 꾸려지는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조직사업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2단계 5개년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도시 조례’를 추진하게 되고, 현실로서 구체화될 ‘문화도시 성남의 마스터 플랜’을 시민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공유 속에서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단계 7개년은 그야말로 꽃을 피워야하는 시기니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결집하여 각각의 특색과 색깔들이 만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1단계는 향후 2, 3단계의 본격적인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주체형성의 기반조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는 벌써 1단계 3개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펼쳐지는 2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은 어느 연구보고서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조적 주체들 속에서 의제화 될 때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은 ‘동네 프로젝트’가 도시의 문화적 재생전략과 결코 분리되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에서 항상 최고의 정치적 이슈는 단연 ‘본도심의 재개발’³⁾입니다. 태평4동에서 동네를 문화적으로 바꿔나가는 다양한 시도를 펼쳐나가자, 혹자는 “철거해버리면 강그리 없어질 걸 뭐하러 그 고생을 하나?”라며 마치 내일이라도 재개발을 하여 땅값이 쟁쟁해질 것 같다는 식의 허튼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 프로젝트’는 그 동네가 처한 도시전체에서의 위치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동네의 문화적 시도가 중장기적인 문화도시 창조전략과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로축의 마지막은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문화통화’는 문화복지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통화제입니다. 문화통화 사업은 5대 문화정책사업 중 가장 뒤에 실현될 프로젝트인데요, 1단계 3년 동안 수행해야할 과제가 성남의 문화통화 모델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06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문화통화 준비를 위한 ‘2006 성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남의 문화예술인 2000여명 중 401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96.5%가 문화통화 시스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요 동기로는 ‘주민과 예술과의 거리극복’(35.1%), ‘즐거운 삶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34.8%), ‘지역공동체 의식고양’(13.2%), ‘사장될 수 있는 재능의 활용’(10.3%)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8월말에는 성남시 집행부, 시의회, 예총, 민예총,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관련인사들과 문화재단이 해외사례조사단을 구성하여 일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문화통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에서 문화예술 생산·소비·유통을 어떻게 자생력의 향상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문화도시를 창조해나가는 주체로 나서게 해야하는데, 이는 재원을 외부에서 계속 쏟아붓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

3) 성남시는 본도심이라 칭하는 수정구/중원구와 신도심이라 칭하는 분당(향후 판교까지 포함하여)과의 차이가 도시전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임은 앞서 거론하였습니다.

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생적 시스템’이 운영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로축은 세로축과는 달리 지금 당장 동네로 결합하여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바꾸고 스스로 창조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가로축의 핵심사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와 ‘성남인의 창작진흥’ 사업입니다. 이 ‘공간’과 ‘창작’의 두 가지 사업은 1개의 동네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의 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재생하는 작업은 곧 주민 스스로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뛰어들 때만이 그 의의가 있고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는 45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동네의 유형이 골목길, 공단, 아파트, 시장, 상가 등 총 5개 정도로 분류될 수 있음을 조사한 후 3년 동안 5개의 동네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마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여 ‘프로젝트 북’을 펴내는 일입니다. 태평4동의 프로젝트 북은 2006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2007년도 은행2동 ‘폴장환상’(아파트유형),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공단유형), 2008년도 시장과 상가 프로젝트북과 함께 2단계 5개년을 출발하는 2009년도부터 45개동의 동네 프로젝트 담당자 워크숍의 교재로 쓰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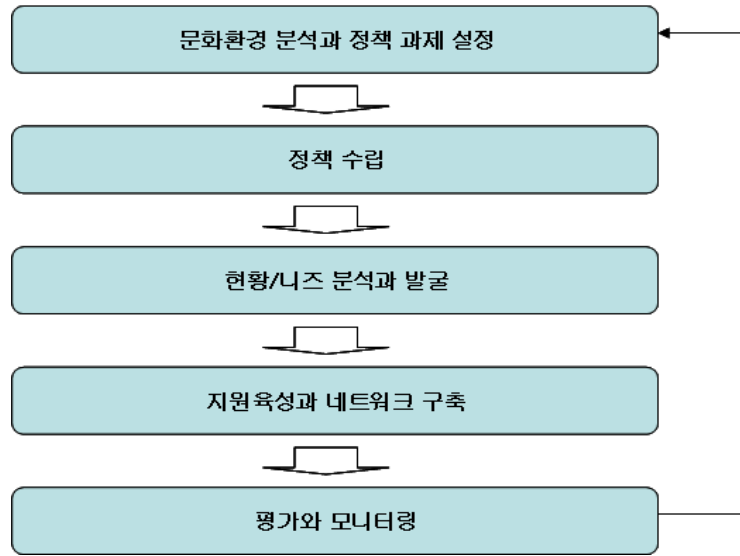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책자가 ‘태평4동의 프로젝트 북’이지 ‘골목길 동네 일반의 메뉴얼 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태평4동의 사례를 통해 그것을 만들어간 과정을 참조하라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른 동네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45개 동네의 프로젝트는 각각 그 동네가 처해있는 독특한 환경과 필요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의 창조적 작업을 통해 그 동네만의 문화적 향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가로축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성남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결코 성남문화재단이 45개 동네 프로젝트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제기하고, 그 문화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동네를 문화의 향기가 넘쳐나는 마을로 바뀌어나가는 주체는 예총, 민예총을 비롯한 지역예술가들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민관단체들, 그리고 바로 제일 중요한 주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남문화재단은 동네 프로젝트 지원센터의 역할을 초기에 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지속성을 위한 ‘주민들의 작은 동네축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인 것입니다.

3.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실천

사랑방 문화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실행전략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활성화 실행전략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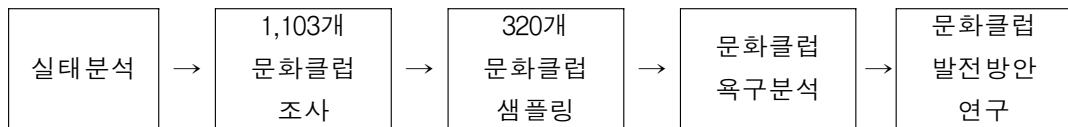


※ 정책과제 설정과 정책수립은 앞의 내용으로 같음합니다.

1) 추진경과

- 추진 경과 요약

- 문화클럽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30개 문화클럽 참여의 ‘클럽파티’ 개최
-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www.clubsb.or.kr) 구축 및 280여 개 클럽 등재
-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 운영위원회 발족 및 출범
-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원 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및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개최

- 세부 추진 경과

- 문화클럽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006.10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발간.
 - 2006.12 :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2007.8~ : 문화사랑방 1~4호 조인.
 - 2007.9~ : 문화통화 ‘넘실’ 운영 및 문화통화 교육.
 - 2007.12 : 사랑방문화클럽 프로젝트북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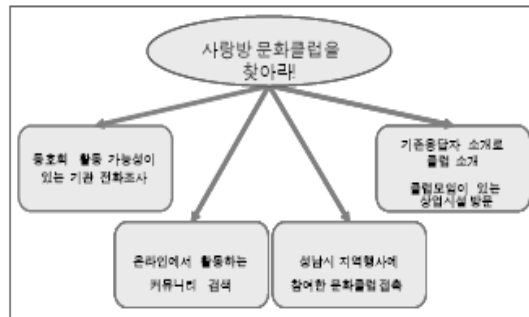
-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구조의 제도화

- 2007.1 :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www.clubsb.or.kr) 오픈.
- 2007.1.26 : 사랑방문화클럽 클럽파티 개최.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네트워크 된 문화클럽을 대상으로 하여 총 30개 클럽지기(대표) 및 클럽인 참석.
- 2007.4 : 사랑방문화클럽 뉴스레터 발송.
- 2007.4.20 : 클럽지원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공개설명회 개최. 지원요구 현황에 맞춰 학습지원, 숙련지원, 공헌축진으로 나눠서 클럽개별 지원.
- 2007.5 : 사랑방문화클럽 통신원 모집.
- 2007.5.2~12 : 클럽지기 모임 창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임의 정체성 수립 위해 클럽지기들과 문화재단의 토론석상 마련. 사랑방문화클럽 클럽지기 모임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2007.5.18 : 클럽지기 모임 창립대회 개최. 운영규정 공식확정, 클럽지기 모임의 정식 출범 선언. 클럽지기들의 주대로 운영위원회 구성완료. 이후, 매월 1~2차례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 2007.6.12~13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공모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도움.
- 2007.6.29 : 클럽지원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 최종 발표. 42개 클럽 지원 결정.
- 2007.6.26~8.13 : 사랑방클럽축제로 인해 클럽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2007.7.2~8.13 :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모임.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의 방향, 일정, 홍보계획, 프로그램, 예산 등 논의.
- 2007.7~11 : 공모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37개 클럽들이 지원 공모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 2007.8.7 : 사랑방클럽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연기 결정. 탈레반의 분당 샘물교회 한 국인피랍사건에 따라 8월 예정이었던 클럽축제를 10월로 연기 결정.
- 2007.8.18 :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연기에 따른 클럽지기 모임. 27개 클럽지기들이 울동공원에 모여 일정 연기 공유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 2007.9.3 : 클럽축제 추진위원회 내 기획팀을 편성하여 기획팀을 중심으로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추진 및 운영.
- 2007.10.11~14 : 클럽주간 사랑방클럽축제 개최(성남아트센터, 울동공원 일원).
- 2007.12.21 : 사랑방문화클럽 2007 활동보고회. 1년간 사업 성과를 클럽지기들에게 보고
- 2007.12.21~2008.1.24 : 2008년 총회 및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방향 추진 위한 TF 구성과 조별 미팅으로 2008년 사업 진행 준비.
- 2008.1.25~26 : 사랑방문화클럽 2008년 워크숍 개최. 2008년 사업방향 토의 및 운영위원회 구성
- 2008.2.15 : 사랑방문화클럽 2008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2008.2.15~3.14 : 2008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8.3.7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출범 및 Web 리뉴얼 OPEN
- 2008.3.19(1차 심사), 3.27(2차 심사), 3.31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08.5~10월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 실행(추진중)
- 2008.9.23~28 :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예정)
- 2008.11.28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활동보고회(예정)

2) 현황/니즈 분석과 발굴

성남문화재단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6년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시민이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지역 내 문화예술 동호인 클럽에 대한 현황 파악, 클럽들이 바라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들 클럽들에 대한 조사, 접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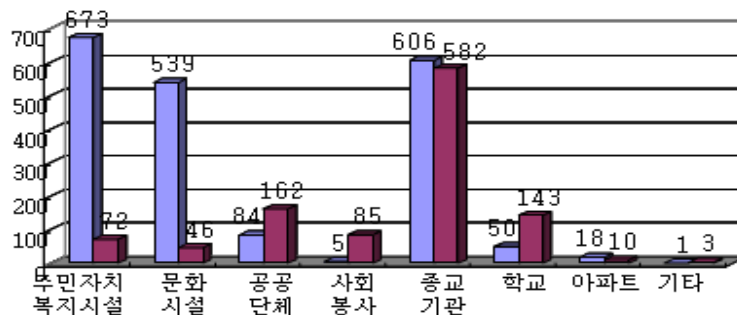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방법



문화시설과 주민자치 및 복지시설 등 1,057개의 기관 중 373개를 전화설문(응답율 35%)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성남시에는 1,103개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들의 설립목표와 활동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카테고리 분류하였습니다.

■ 총 프로그램 수
■ 총 동호회 수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수 및 운영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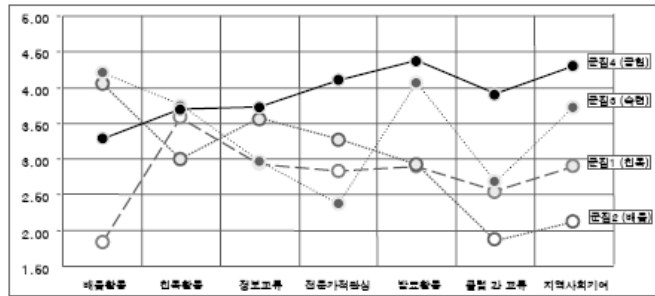


- ▶ 친목클럽: 친목활동에 관심, 온라인 활동 중심,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20대 중심
- ▶ 배움클럽: 문화예술활동 학습과 정보 교류, 커뮤니티 형성 저조, 여성/직장인/주부 중심
- ▶ 숙련클럽: 학습과 발표활동 활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오프라인 활동 중심, 직장인/

주부 중심, 30~40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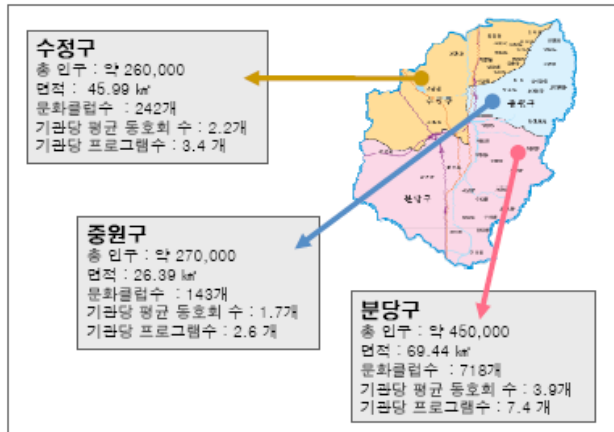
- ▶ 공헌클럽: 친목, 정보교류, 발표,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 지역사회 기여 활동 활발, 온/오프라인 활동 모두 활발, 수평/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전문가 모임 다수,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 30대(22%)>20대(19%)>40대(13%)

사랑방 문화클럽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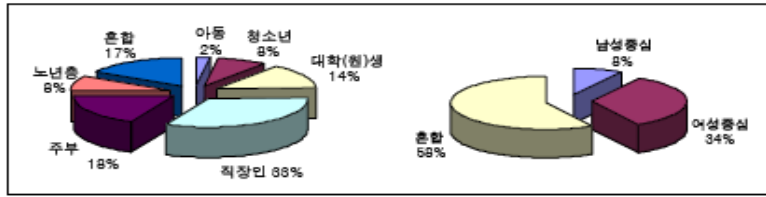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분당구(718개)>수정구(242개)>중원구(143개)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각 구의 평균 사랑방 문화클럽 수는 구별 면적에 비례하며, 성남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성남시가 문화클럽들이 활동할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의 성남시 내 지역적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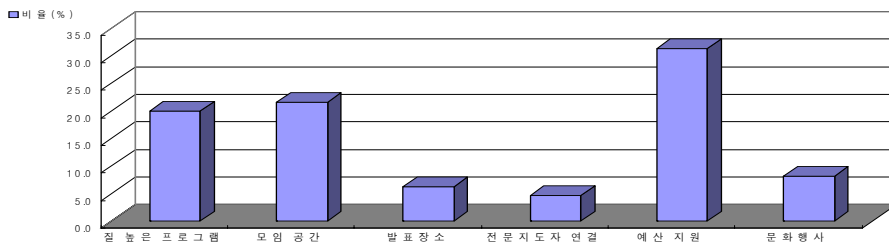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들의 구성원들은 직장인(32.8%)>주부(18.4%)>혼합(16.5%)>대학생(14.3%)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 구성은 혼합(58.3%)>여성중심(33.5%)>남성중심(8.5%) 순으로, 직장인과 여성의 참여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혼합(27.3%), 20대(21.6%)가 많았고 40대 이상도 23.8%를 차지하여 구성원의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구성원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랑방 문화클럽의 생성계기는 오프라인 관심 공유가 2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클럽의 지속기간은 3년 이상(47%)>1년~2년 미만(14%)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미만도 13%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의 운영비용의 경우 구성원들의 회비(53.2%)>소속기관의 예산(15.5%)>후원/협찬(9.5%)>강습비(8.0%)>운영진부담(4.9%)으로 각각 조사되어 사랑방 문화클럽들의 활발한 활동에 클럽 운영과 공간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최우선 정책적 지원요구사항⁴⁾으로는 클럽활동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과 공간 확보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의 지원요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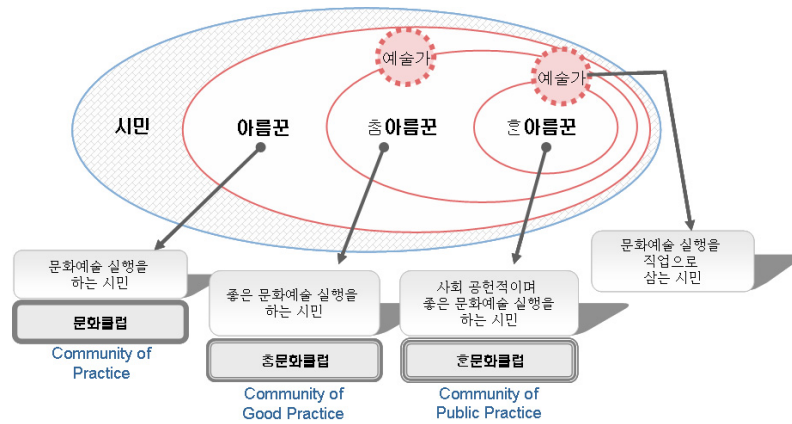


3) 지원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성남문화재단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랑방문화클럽 정책의 궁극적 시민상(市民像)을 ‘시민예술가’로 상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애칭으로 ‘아름꾼’이라는 표현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아름꾼’은 아름다운의 접두어 ‘아름’과 ‘꾼’의 합성어로, 문화예술과 함께 삶을 누리는 문화시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름꾼’에는 기존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예술가를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문화적 여가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화예술 활동역량과 사회공헌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 아름답꾼 개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내용을 다시 물어본 결과 결국 공간과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항목으로 ‘예산지원’이 나와 있을 경우는 다목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대부분 이 항목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문조사에서는 ‘예산지원’이라는 답변항목을 넣지 않고 구체적 필요사항을 표기해야 한다는 사후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름꾼 개념도5)



■ 1단계 기본 육성

- 회원들끼리 활동하고 있는 문화클럽들을 육성함
- 문화클럽의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공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원하는 모든 문화 클럽들에게 사랑방, 지역 사랑마루, 예술가 레지던스, 사랑마당 참여의 기회를 개방함
- 문화클럽끼리의 교류와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함
- 리더교육 프로그램(워크숍 등) 지원함

■ 2단계 심화 육성

-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춤문화클럽들을 육성. 발표의 기회를 요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시도하기 시작함. 적극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주선해 줄 필요
- 문화 클럽 운영 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함
- 공연 및 발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경우, 지역 사랑마루의 특수 목적 사랑방, 작은 사랑마당 이용의 우선권 부여
- 문화클럽과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주선,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기획 역량 증진을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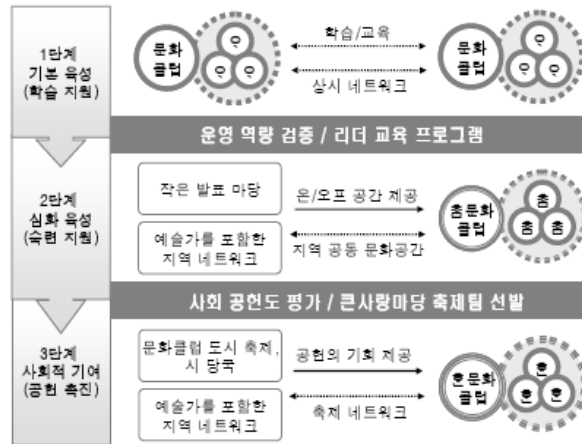
■ 3단계 사회적 기여

- 흔문화클럽은 이미 사회적인 마당을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고, 사랑마루를 통하여 사랑방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체 노하우를 가진 문화클럽들임. 도시 축제의 기획 주체 및 문화클럽 교육 당사자로 활동을 권장, 그 역할을 존중하며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함
- 문화클럽 활동의 사회적 기여도를 일정 시기별로 평가, 공헌도가 높고 조직 운영 능력이 뛰어난 문화클럽들을 도시 축제 기획팀으로 편성함.
- 소외지역을 위한 문화클럽 자체 프로그램 공모 등 사업 단위로 문화클럽 활동 촉진함

5) 춤 : '춤'의 옛말. '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흔 : '한'의 옛말. '큰', '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우리'라는 의미로 사용.

사랑방 문화클럽 단계별 발전 모형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 문화클럽들 현황과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2007년 순수 문화예술 동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42개의 사랑방 문화클럽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사업은 성남시를 소재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 공모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순수 아마추어 문화클럽 중심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 클럽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 10월에는 클럽주간 사랑방 클럽축제를 통해 성남문화재단과 시민이 협력/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랑방 문화클럽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2007년도 지원관련 사항정리

구분	항목	내용	
지원 분야	클럽지원	학습지원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수강
		숙련지원	문화예술활동의 질 제고를 위한 연습공간 이용
		공헌축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사회기여의 발표장 이용
	클럽주간 사랑방 클럽 축제	홍보지원	클럽홍보 기회 제공
		발표지원	클럽의 기량 발표장 마련
		교류지원	클럽간 교류 또는 지역 교류
지원 방식	개별 지원	1개 클럽 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통합 지원	2개 이상의 클럽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통합지원 우선 원칙	
	지원 받은 모든 클럽은 클럽주간-사랑방 클럽축제에 참여 원칙		
지원 자격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클럽으로 회원 3인 이상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관련 클럽		
	클럽을 대표하는 클럽지기를 반드시 선정		
	클럽지기는 '사랑방 클럽지기 모임'에 참석 원칙		
심사 방법 및 기준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		
	심사기준	활동계획의 충실성, 취지의 부합성, 활동의 실현가능성, 예산내역의 타당성, 공모지원 클럽의 활동역량 및 실적	

2008년도 사랑방 문화클럽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이하 문화공헌)입니다. 문화공헌은 2007년도 지원사업과 운영위원회 조직을 평가하면서 클럽 스스로 도출한 결과였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을 창조해보자. 둘째, 이러한 일상활동이 운영위원회와 네트워크의 클럽들간 긴밀한 결합을 높여낼 수 있도록 팀제로 운영하여, 팀장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자. 셋째, 개별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함께 구성된 팀을 지원하며, 활동 속에서 네트워킹을 확대해 나가자.

이 세 가지의 결의는 30년이 넘는 우리나라 지원사업의 역사에서도 찾기 어려운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결의를 전체 클럽인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확정하고, “우리의 힘은 창조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더욱 창조적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사랑방 문화클럽은 더욱 발전할 것”을 건배제의로 제창하였습니다. 결의는 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총 103개 클럽 10개 팀이 응모하여 최종 67개 클럽 7개팀으로 심의·확정, 지금 현재도 성남시 동네 곳곳에서는 사랑방 문화클럽의 문화공헌 활동이 ‘문화도시의 발’을 일구고 있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문화공헌 현황

○ 7개팀_67개 클럽 참여

번호	팀명	대표명	참여 클럽수	참여클럽(클럽지기)
		소속클럽		
1	사랑, 나눔의기쁨	김은숙	6	분당색소폰클럽(임기용)/분당요들클럽(김원섭)/ 민요사랑(이현정)/샤론클럽(이성녀)/ 가족풍물패 신바람(박창식)
		여섯줄사랑		
2	아름다운 문화마을	박순정	11	쭈민제상(김성운)/빛누리(김교진)/늘봄(이상훈)/ 천상연(김영범)/맑은누리(홍은숙)/쁘니(박정숙)/ 한지마을(조성임)/단청(왕순임)/야단법석(이은정)/ 이야기야 놀자(박소연)
		여행꾸러미		
3	사랑의 힘	안윤환	14	성남누드크로키(류해일)/연우회(박아영)/ 규방공예(김정현)/한지공예(김임진)/ 늘푸른꽃누리미(김성덕)/분당퀼트(김미화)/ 분당늘푸른색소폰앙상블(김기덕)/ 로망스기타합주단(이정미)/ 아름다운클래식음악이있는곳(김일식)/ 찬란한일상(김성진)/빛여울(이은주)/ 은빛샘수채화(김미나)/아마데이만들린챔버(김병규)
		분당중앙수채화		
4	백년의 약속	곽윤부	7	대원목향회(박미영)/산도깨비(권재형)/ 서각마을(김영자)/성남아트센터사진클럽(고홍석)/ 소망을그리는사람들(박순덕)/수목향기(유명현)
		풍물굿패우리마당		
5	우리동네 음악회	박병준	11	원드매니아(민원기)/풍물굿패두령(문정숙)/ 비바댄스(김중근)/스튜디오창(이현창)/ 성남아트센터사진반(최명수)/ 모듬복을사랑하는사람들(김은수) 노래만큼좋은세상(김수란)/터줏풍물패(윤선노)/ 성남서예청년작가회(이순덕)/성남6mm(김종남)
		자율학습		
6	그루터기	김천복	7	에듀플루트오케스트라(김은영)/

		탄천색소필		분당만들린(조옥련)/고은이오(남화순)/수람회(조순희)/예다음(이만복)/다종이인형만들기(강명자)
7	Moving Sound	박종대	9	분당윈드오케스트라(김태선)/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김형미)/풀잎소리(유영식)/성남목관앙상블(김용우)/분당여성합창단(김인숙)/맑은노래친구들(윤금선)/새암터(허은아)/성남분당사진사랑(김진한)
		로스아미고스기타 합주단		

○ 행사일정

월	일시		주관	행사명	장소	
5	10(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홈페이지 만들기	금광1동	
		15:00-20:30	우리동네 음악회	새봄맞이 산성음악회	남한산성놀이마당	
	14(수)~16(금)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진교육_1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5(목)	13:00-14:00	그루터기	소외된 노인을 위한 공연	수정노인복지센터	
	17(토)	19:00-20:30	사랑의 하모니	효가족사랑 음악회	태평4동 금빛초교	
	20(화)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진교육_2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1(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1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1(수)~28(수)	10:00-16:00	사랑의 힘	국군아저씨 힘 내세요	국군수도병원	
	24(토)	10:30-13: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한지공예 체험교육_1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09:00-17:00		문화생태기행_1차	경기일원	
	25(일)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1차	금광동 일원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1차	터사랑청년회	
	27(화)	19:00-21:00		사진교육_3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어린이동네방송국_2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8(수)	16:00-18:00	Moving Sound		숲 속의 풀잎소리 여행	은행2동 주공APT 풀장	
31(토)	16:00-18:00	Moving Sound		숲 속의 풀잎소리 여행	은행2동 주공APT 풀장	
6	추후공지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정자1동 청솔복지관 앞
	3(화)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부 풍물교육_2차	터사랑청년회
			사진교육_4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4(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3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6(금)~8(일)	11:00-18:00	사랑의 힘		오감의 힘	울동공원 책 테마파크
	7(토)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역사탐방_1차	만해기념관
	8(일)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2차	금광1동 일원
	10(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3차	터사랑청년회
					사진교육_5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1(수)	10:30-11:30	Moving Sound		사랑의 하모니	단대동 성남혜은학교
		16: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어린이동네방송국_4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3(금)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2차	남한산성 일원	
				우리동네 역사탐방_3차	정일당묘역	
	14(토)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한지공예 체험교육_2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0:30-13:00			장수사진 촬영_1차	금광1동 일원
	17(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4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6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8(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5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0(금)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4차	정일당묘역
	21(토)	19:00-21:00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음악회	태평3동 수진초교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역사탐방_5차	토지박물관		

	22(일)	08:00-17:00		문화생태기행_2차	경기일원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3차	금광1동 일원	
	24(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5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7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5(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6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4(화)	13:00-14:30		사랑의 하모니	사랑 나눔의 기쁨	북정동 수정노인복지센터
	27(금)	15: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네 역사탐방_6차	토지박물관
28(토)	15:00-18:00	우리동네 역사탐방_7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4:00-16:00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이야기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7	1(화)	19:00-21: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부 풍물교육_6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8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2(수)	12:00-13:00	그루터기	환자들을 위한 위문공연 및 전시회	분당 제생병원	
		16:00-18: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어린이동네방송국_7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6(일)	10:00-18:00		행복한 밥상만들기_4차	금광1동 일원	
	8(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7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9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9(수)	16:00-18:00	어린이동네방송국_8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1(금)~17(목)	10:30-18:00	사랑의 힘	사랑방의 힘	아트스페이스 율갤러리	
	12(토)	14:00-16: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이야기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6:00-18:00		장수사진 촬영_2차	금광1동 일원	
	15(화)	19:00-21:00		주부 풍물교육_8차	터사랑청년회	
		19:00-21:00		사진교육_10차	금광1동 물푸레도서관	
	19(토)	20:00-21:30	사랑의 하모니	자연사랑 음악회	하대원동 대원분수공원 예정	
		16:00-20:00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마을문화제 우리동네소식지 발간 한지공예 체험교육_3차	금광1동 금상초등학교	
20(일)	10:00-18:00	Moving Sound		행복한 밥상만들기_5차	금광1동 일원	
	19:00-20:30		풀벌레 소리	남한산성 놀이마당		
28(월)	13:00-14:00	우리동네 음악회	위문공연	산성동 수정노인복지회관		
8	2(토)	20:00-22:30	사랑의 하모니	'열대야, 놀자'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10(일)	19:00-21:00	우리동네 음악회	한 여름밤의 Rock Concert	중앙공원 야외무대	
	24(일)	15:30-20:30	그루터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	중앙공원 야외무대	
9	2(화)~7(일)	10:00-18:00	그루터기	가을문턱 전시관 나들이	분당여성문화회관 갤러리	
	6(토)	20:00-22:00	사랑의 하모니	추억으로 가는 음악여행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7(일)	16:00-17:30	Moving Sound	귀뚜라미 노래잔치	율동공원 책 테마파크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은행2동 주공APT 풀장	
	19(금)	20:00-22:00	그루터기	찾아가는 길거리 공연	정자동 불정교	
21(일)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태평4동주민자치센터 뒷마당		
10	4(토)	18:30-20:30	우리동네 음악회	희망대 Rock Concert	희망대공원	
	5(일)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금광1동 금상초교 강당	
		16:00-17:30	Moving Sound	낙엽소리	탄천어린이수영장	
	21(화)	19:30-21:00	사랑의 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양상블시어터	
	25(토)~26(일)	11:00-18:00	사랑의 힘	당신들의 힘을 느낍니다	성호시장	
	26(일)	14:00-15:30	백년의 약속	찾아가는 혼례잔치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 강당	
28(화)	19:00-20:30	그루터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정자청소년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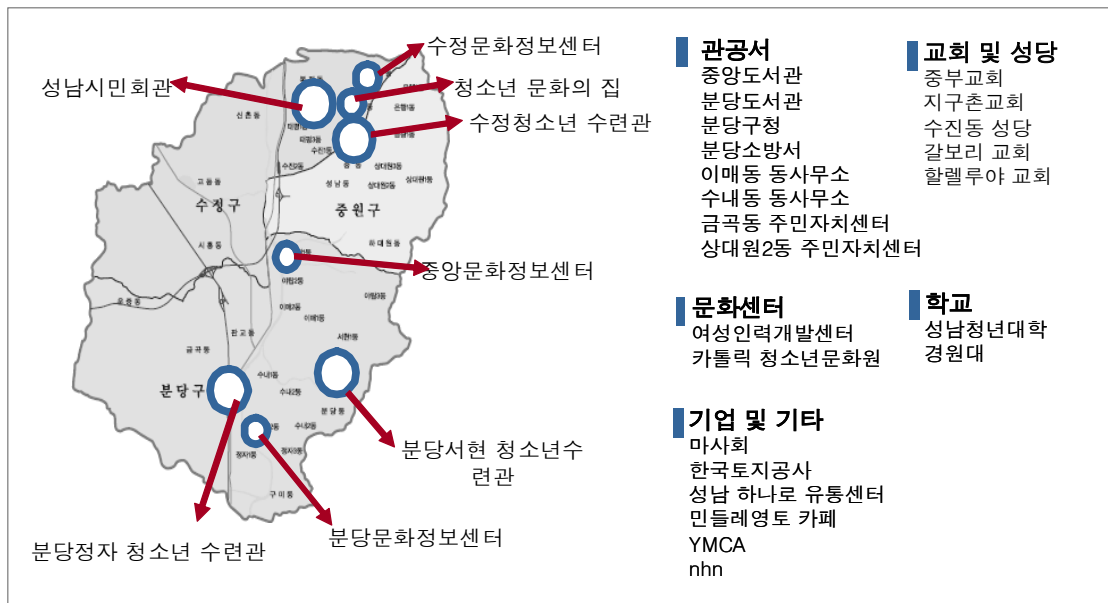
*상기 일정은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마을팀의 11개 행사는 상대적 문화기반이 취약한 중원구 금광동을 중심으로 실행

*아름다운 문화마을팀 행사를 제외한 31개 행사 중 본도심 16개와 신도심 15개 행사 실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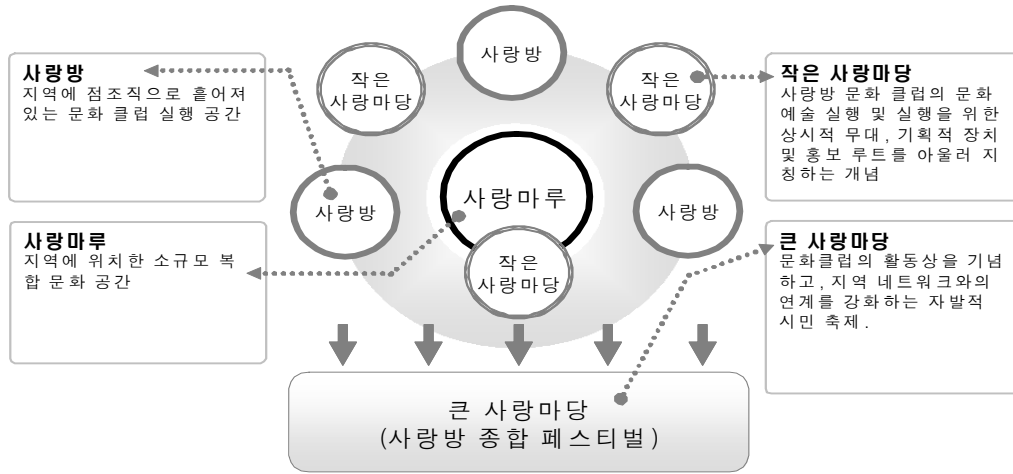
사랑방 문화클럽 육성 방안에서는 공간(‘사랑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화클럽이 생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차적 요소가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2007년에는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공간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사랑방 문화클럽과 문화통화 사업을 연계하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였습니다. ‘성남시 문화공간 실태조사’는 지역 내 850여개의 공간과 시설을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한 1,2차 필터링과 샘플링 작업을 통해 160여개의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을 DB화하였습니다. 현재 문화통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은 DB화된 공간자원과 세부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사랑방 확대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로 보바스 병원을 비롯한 4곳의 사랑방 문화공간을 지정하여 사랑방 문화클럽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랑방 공간이용 예시



문화클럽들이 활동하는 공간, 즉 사랑방은 삶의 현장과 밀접히 닿아있는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방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작은 사랑마당을 기획하기 위해 사랑마루가 지역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 사랑마루는 만남(通), 학습(育), 실행(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클럽의 성격을 고려하여 복합적 공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방과 사랑마루, 작은 사랑마당에서 일구어진 문화클럽 활동의 결실은 하나의 물결로 모여져서 큰 사랑마당을 통해 표출될 것입니다.

사랑방 문화클럽 공간 열개



사랑마루는 사랑방에서 (큰)사랑마당으로 넘어가기 위한 길목 역할을 하며,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 지원팀인 '사랑마루 허브'와 지역 내 위치한 소규모 복합공간 '지역 사랑마루'로 나뉩니다.

사랑마당은 열린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 클럽의 표출과 공헌 마당(場)으로 작은 사랑마당과 큰사랑마당으로 나뉩니다. 작은 사랑마당은 문화클럽이 주도하여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소규모 축제와 공연의 장이고, 큰사랑마당은 화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지역 축제입니다. 2007년 10월에 성남아트센터와 율동공원에서 펼쳐진 사랑방 클럽 축제에는 출연진만도 720명에 달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성남아트센터, 남한산성,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등 성남 곳곳에서 본격적인 성남 시민의 축제를 펼칠 계획을 세워놓고, 이미 추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4) 평가와 모니터링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 내용	평가 지표
사랑방 지수	사랑방 문화클럽의 활동상을 평가	<활동지수>: 온라인 등록 클럽수, 클럽 평균회원수, 클럽존속기간, 교육 프로그램수, 기획프로그램수, 온라인 등록 작품수 등 <속련지수>: 지역축제 참여 클럽수, 클럽당 공연횟수, 자발적 공연 증가정도, 공연 및 작품 질적 수준 등 <공헌지수>: 공연 및 전시 참가자수,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 건수, 사회적 공헌도 등
사랑마루 지수	사랑방 문화클럽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지원 환경 평가	<공간지수>: 운용가능한 사랑방 개수, 사랑방 일정 지역 편중 여부, 적절한 장비 및 시설의 보유 여부 등 <지원역량지수>: 클럽 관련 정책/공모 및 지역 축제 정보 제공의 성공성, 활동 피드백 개설과 반영 여부, 단계적/체계적 운영 계획 수립 능력 등 <협치지수>: 클럽과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과의 연결고리 설정 및 성공여부, 협력가능한 예술가 및 지역 문화인적 자원 리스트 확보 여부, 지역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정도, 지역 축제 기획 및 운영의 클럽 참여 범위 여부 등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이 목적으로 한 성과들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평가와 아울러 사랑방 클럽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평가와 모니터링⁶⁾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문화 환경변화를 끊임없이 관찰,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 ‘문화통화 운영위원회’ 등의 시민이 중심이 된 조직을 구성, 상시적으로 추진 프로젝트들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방지수와 사랑마루지수는 사랑방 문화클럽 지원육성사업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가늠하고 시민 모니터링 요원들의 적절한 판단을 위한 평가지수 항목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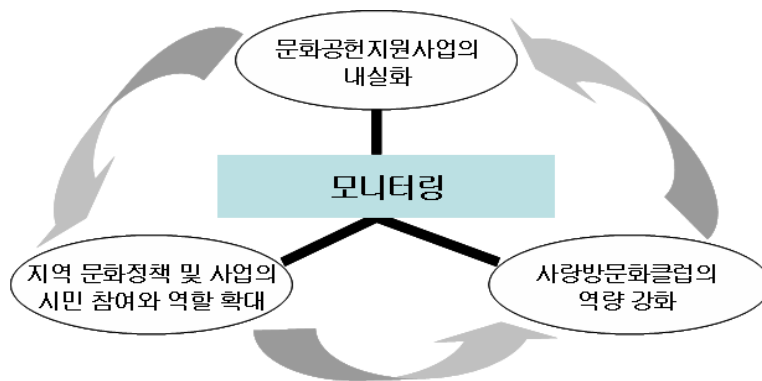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6월 2일부터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 모니터링단 모집공고’를 6월 13일까지 공고하여 문화기획과 모니터링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일반 주부와 학생 등 수정·중원·분당 3개 구에서 3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하였고, 이에 대해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거쳐 20명 선발하여 성남시 문화예술정책과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문화기획 기초 이론 및 실무 등 5차례의 결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성남문화재단의 모니터링 제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 제도

① 목적

모니터링의 목적



■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마을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문

6) 성남문화재단은 사랑방문화클럽 사업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를 2007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연계방안 연구: 창조시민·창조공간·창조도시』(성남문화재단, 20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통화 등 문화정책에 대한 기획과정에서부터 실행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계획안과 성과평가, 제도개선,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 지역 내 문화매개자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2008년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문화공헌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평가를 중심으로 문화공헌지원사업의 긍정적 부분과 개선점을 재단 및 사업 참여 클럽과 구성원에게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 문화정책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감시 성격 보다는 시민 스스로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회와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모니터링의 목적은 단순히 제 3자의 입장에서 문화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 접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감식안을 높이고, 또한 아울러 문화기획과정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문화매개자로 활동 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 또는 문화활동가 인큐베이팅(Incubating)의 목적도 있습니다.

② 모니터링 대상 사업

-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2008년 사업기준)

사업명	대상 사업수	비고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구축사업	37개 행사	7개팀(총 67개 클럽), 본도심 23회, 신도심 14회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	5개 프로젝트	골목길(태평동), 동네(은행2동)_지속사업 공단, 재래시장, 상가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사업	운영 시스템	사랑방 4 곳, 클럽회원 37개, 개인회원 84명

③ 모니터링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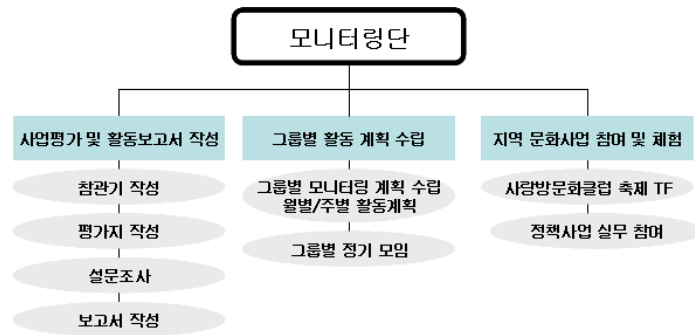
- 모집공고 :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에 게시
- 자격 및 모집인원
 - 문화기획과 모니터링에 관심 있는 자
 - 20명 내외
 - 성남시민 및 성남지역 문화클럽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자 우대
- 선발
 - 1차 : 소정양식(모니터링 지원서)을 제출받아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소정양식 제출)
 - 2차 : 모니터링 및 기획실무 교육과정 이수자(주 2시간씩 5주)

모니터링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내용	
1차	· 성남시 문화예술정책의 이해	팀구성하기/ 팀별 기획주제 설정
2차	· 모니터의 역할 및 평가지표 작성법	팀별 공동기획작업 1 팀발표
3차	· 문화기획 기초 이론 및 실무	팀별 공동기획작업 2 팀발표
4차	· 개별사업의 이해 : 사랑방문화공헌지원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및 문화통화 · 팀 구성, 활동계획 및 향후 운영프로그램계획 수립	팀별 공동기획작업 3 팀발표
5차	· 1기 모니터링 임명장 수여식 및 와인파티	팀별 워크숍 결과물 발표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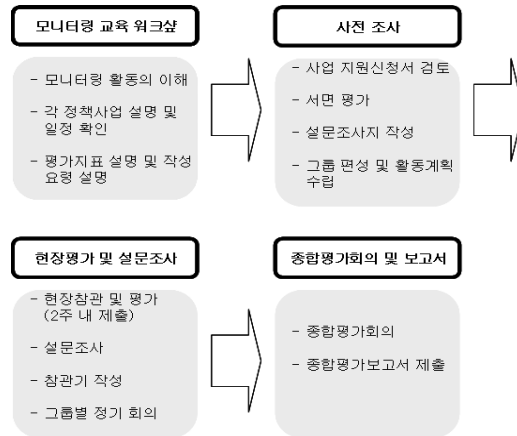
④ 모니터링 활동 범위

모니터링 활동 범위



- 사업 평가 및 활동 보고서 작성
 - 참관기 작성
 - 평가지표에 의해 구조화된 평가지 작성
 - 모니터링 교육을 통한 사업별 평가지표 마련
 - 서면/현장 평가
 -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 최종 활동 보고서 작성
- 그룹별 모니터링 활동 계획 수립
 - 3개 정책 사업에 대한 그룹 구성과 각 그룹별 모니터링 활동 일정 및 계획 수립
 - 한 행사당 모니터링 요원의 수 2~3인 이내
 - 그룹별 리더 선정 및 자체 회의를 통한 월별/주간 활동계획 수립
 - 각 그룹별 코디네이터(사업 실무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일정 및 활동 내용 조정
- 지역 문화사업 기획 및 실행 과정 참여 및 체험
 -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 등 개별 문화사업 및 행사 TF에 참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별 문화사업 시행에 실무진으로 참여

6) 모니터링 절차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벌써 16년째 성남의 역사, 생태, 도심, 문화예술, 체험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문화동호회인 ‘성남 문화기행 여행꾸러미’의 대표이자, 직장생활을 하느라 평일 저녁과 주말 밖에는 시간을 못내는게 못내 아쉽다는 박순정(31)씨는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문화활동을 하며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문화 생산자로의 욕심이 커질수록 전문과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 접하며 시야를 넓히고, 지역의 문화예술환경을 이해하며 그 발전 방향을 여러 채널을 통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매개자로서 내가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싶어요”라며 모니터링단 교육 워크숍에 함께 나눌 음식까지 싸들고 오는 열성 시민입니다.

4.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지난 3년을 반추해 보면, 생활 속의 시민문화 저변 확대와 자생력 신장, 문화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증진과 공동체 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상(像)’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식, 공동체 네트워크 확대와 새로운 클럽 발굴 및 육성, 그리고 문화재단과 문화클럽간 신뢰기반의 보다 원활하고 협력적인 소통구조 정립 등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한 문제들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반드시 부딪혀 풀어야 할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성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클럽 육성사업이 타 지역에서 추진 될 시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1) 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

- 문화클럽 육성 목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의 예술을 스스로 창조하며 누리도록 기반

을 조성하는데 있다

앞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두 개의 축을 만나게 하는 것, 즉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류가 축적해 온 예술의 성과를 누리며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문화클럽 육성 지원정책은 시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생활 속의 예술활동을 스스로 펼쳐나가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문화클럽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틀을 만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사회 만들기(building a good society)’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기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상호 책임의식을 높여, 시민 스스로가 삶에 대한 주체로 설 수 있는 제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합리적 지원방식의 선택

○ 공공성 지향의 선순환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민 문화동아리 지원은 공모를 통해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시민 문화동아리들의 역량이나 자생력을 높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금 공모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원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촉매의 역할에 있지, ‘직접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이 시민 문화활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이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단선적 차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됩니다. ‘문화 소비’에서 ‘창조, 생산’의 차원으로, 그리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공공성을 지향하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나누고 소통하는 다차원적 형태로 나아가 할 것입니다. 시민 문화클럽은 ‘지원의 수혜대상’인 동시에 그 지원의 혜택을 사회·문화적 가치로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순환 매개자’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활동과 교류를 위한 장, 즉 문화클럽이 모이고, 연습하고, 발표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 인프라를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문화클럽 활동 시 빌려주는 등, 간접적인 지원 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 인프라의 경우, 기존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활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 즉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뿐 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지역의 건강한 사업 운영 주체 선정

○ 건강한 리더쉽과 소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문화클럽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클럽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세우고, 갈등사안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의 지역 중심체를 세우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집 등 지역 문화기관이나 시설이 주도적인 매개·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전제는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정책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원사업의 위탁 수행이 아니라, 세심한 기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협력하는 ‘생활현장에서의 민관협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관련 정책과 사업 성공의 주요 열쇠이며 구체적 실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개·지원 지역중심체’를 형성·발전시켜 내기위한 교육과 워크숍은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책’은 위로부터 아래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내려지는 것이라는 관행이 은연중에 굳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생활 속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가 시민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지역 스스로의 자치적인 힘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의 전개방식도 지역의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내용을 풍성하게 발전시켜 낼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문화활동’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개별 문화예술동호회에 내재한 자발적 의지와 지역의 자치적 역량을 건강한 리더쉽과 소통의 네트워크로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의 제안사항이 ‘성남’이라는 한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일지라도, 지역적 특성과 환경이 이질적인 타 지역에게도 근본적 지향점을 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문화클럽 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 속의 문화활동’이 ‘문화적 삶의 질 제고’라는 실질적 성과로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들이 앞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1.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

전고필 (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 사례/ 문화의집 조성 사업

- 1996년 시작한 문화의집 조성 사업은 규모 중심의 문화시설 건립이 지녔던 예술정책의 수월성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기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일상 생활권역 내에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차후 Prosumer로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의집은 이후 전국 160여개소로 확장 되었으며, 곳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 및 일반인들의 매개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게 됨.
-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운영의 권한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함.
즉, 지역마다 다른 조건이지만 문화적 상황이 열악한 지역 현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문화의집이 새로운 지역문화 활성화의 버팀목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를 공공 문화시설이라는 측면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맡아 운영하는 경우와 지역 토착 문화주체들인 문화원이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시설의 관리 부분이나 지역문화의 전통적 기반을 살리는 데는 유효할지는 모르나 급증해 가는 문화변동 및 이에 상응하는 문화욕구들을 충족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지닌 낡은 인사 시스템이었음.
- 때문에 문화의집 자체가 출범할 때의 생활권 문화창작 및 향유 공간으로서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는 행정 공무원들의 자리 넓히기, 문화원의 공간 확장 전략의 사유물로 전략 되어 버린 실패를 유발함.
- 반면 새로운 유형의 주체들을 전면에 내세운 지역 문화의집의 경우는 지역 문화인들을 엮어 내고 새로운 패턴의 문화활동을 창조해 내며 다양한 장르 예술을 통합화 해 나가며 두각을 나타내고 지역 문화의 역동성을 환기한 사례를 남기게 됨.
- 이 부분에서는 문화의집 공간 자체가 각종 문화관련 동아리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장점이 있음.
- 즉, 문화의집 내에는 “전통 사랑방, 유아 사랑방, 문화창작실, 개인 연습실, 시청각실” 등 실제 동아리 활동에 유용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는 강점과
- 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생활권의 동아리 활동을 부양하는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
- 아울러 문화의집의 조정력이 어느 특정한 문화단체나 장르 예술 한편에 치우치지 않게 구동해 가는 경우를 가짐으로서 좋은 성과를 산출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 현재에도 전국 150여개의 문화의집이 있지만 새롭고 신선한 아이템으로 생활권 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첫째는 대부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지역의 토착 문화권력이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세 번째는 특정한 장르 예술에 치우쳐 운영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점 등은 향후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데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160여개의 문화의집을 통해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문턱 낮고 실생활에 유용한 문화의집을 조성하여 주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은 매우 유의미한 것임.
- 동 사례를 통해 볼 때 정책이라는 것이 결정되면 집행되는 순간에는 탄력을 받게 되지만 정책 공급의 확고한 시스템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나락으로 떨어지기 마련임을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의 전개에 대한 견해

- 어떤 주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① 구성된 동아리만 지원할 것인가?
- ② 동아리 구성을 지원할 것인가?
- ③ 매개 공간을 지원할 것인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 하며 이 세가지를 다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의 경우 예술인이나 문화단체들이 거점만 확보하면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으면 이는 문화의집 외에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통해 매개하는 주체들이 있다면 특히 이들이 지역 문화의 트렌드를 명확히 인지하고 주민과 함께 한다면 전국민적 문화동아리 활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 지원의 주체와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 ① 기존의 방법대로 지방자치 단체에게 맡길 것인가?
- ②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타 문화시설, 문화단체에 맡길 것인가?
- ③ 또 다른 지원 기관을 설립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지원의 주체를 잘 선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식은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고 몇몇 예술단체 중심의 편향성을 띠거나 소액 다건 주의로 흘러 예봉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가는 무대예술창작 지원금의 경우는 사업의 본질인 창작은 없고 지역 축제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까지 가치가 전도되고 말았다.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 동아리를 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군수님과 시장님을 면담하는 불상사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투명성과 헌신성을 가진 단체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예술위원회는 창작자 중심의 지원 정책과 생비자 지원정책 사이에 간극을 메꾸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단체도 있고, 복권기금처럼 지역에서 공모하여 지역의 문화단체나 시설에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으며, 새로운 단체를 두어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평 무사한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피드백하여 그 과정을 토대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며 발전시키는 항구적인 노력의 주체가 함께 있었을 때 진정한 생활권의 문화 예술 동아리가 활성화 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토론2.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은 새로운 정책인가

김혁수(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 문화복지와 문화예술

문화의 시대라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의문을 달지 않는 이 시대에 문화복지와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가? 사실 문화복지와 문화예술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구분이 모호하다. 문화복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경제적으로 거리가 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 즉 생활 속의 문화 활동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그 효과 역시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은 어떠한 시각으로 얼마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다가와 있는가?

2. 문화예술, 그 앞의 문제들

사실 우리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하드 웨어 및 소프트 웨어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웬만한 지역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문화센터 없는 곳이 없으며 그 곳에서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시에도 구청에도 군에도 동사무소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참으로 많은 문화예술이 우리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제의 원고에서도 말하듯이 진정한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이 아닌 일방향성, 일회성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구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로는 결코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현재와 같은 문화예술이라는 소프트 웨어의 구조 변경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본 환경 즉 여건 역시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 하겠다. 어린이에게 주어진 환경은 학교와 학원 뿐이다. 어머니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린이를 위한 학교봉사와 숙제 대행 뿐이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봉사 뿐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어진 환경은 손자손녀를 볼보는 도우미 역할 뿐이다. 정말이지 짜증날 정도로 수없이 되풀이되는 말이면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며 우리가 문화예술에 다가갈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인 것이다.

3.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예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부모들은 고민에 빠졌다. 주 2일에 대한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상황이었다. 생활 속의 문화예술보다는 여가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물론 그 해결방안이 생활 속의 문화예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4. 잘못된 접근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이 무엇인지 모른 채, 문화 예술이라는 물량공세만 계속되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 소외지역 순회공연 및 프로그램은 엄청난 예산과 함께 전국을 무차별 공격했다. 그러다 보니 남쪽의 섬마을 어린이들조차 공연 좀 그만 내려오라는 소리까지 하게 되었고, 여기저기 학교와 마을에서는 이들을 귀찮아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었다. 기존의 가난한 예

술인들의 생활 보조 수단도 되고 각 지역의 주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일거양득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각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가가 지향하는 예술 교육 즉 결과물 생성을 위한 과정을 주입식으로 교육할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예술가가 될 수는 없는데도 교육은 그 자리를 맴돌았다. 발제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의 준전문 / 전문적 문화 활동 발전 방안의 경우는 현실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5. 매개자 교육 필요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이라는 정책이 보다 다른 차원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매개자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전문 문화예술가를 활용한 방식으로는 똑같은 실수만 되풀이 될 것이다. 예술가도 아닌 교육자도 아닌 문화예술 매개자가 필요하다.

5. 매개자를 통한 문화클럽 활동 지원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공간적 여건보다 매개자의 정확한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속의 문화 예술 운운하면서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과 예산 지원을 먼저 요구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은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지역, 동네, 단지, 놀이터, 거리, 학교, 집, 방, 거실이라는 장소는 물론 계층의 벽도 자연스럽게 넘나들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들을 지원한답시고 경쟁을 붙이고 그 경쟁에 대해 보상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찾아가는 매개자의 역할과 방향 설정 그리고 순수한 조직 구성이 우선 되어야 만이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전혀 다른 진정한 생활 속의 문화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6. 서울문화재단의 생활 속의 문화 예술

서울문화재단의 생활 속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과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 ‘자치구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놀이터 만들기’ ‘청사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는 내 친구’ ‘책 읽는 서울’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 체험’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을 지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적 공간적 지원 보다는 매개자 양성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이라 하겠다. 서울문화재단이 직접 양성한 매개자들은 자신이 맡은 각각의 사업이, 참여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지향하는 문화 생활과 연계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 속의 문화 예술은 결코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방향과 인식의 전환만 담보된다면 그 어떤 사업보다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3.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방안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문화자원봉사자회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김응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기획실장)

I. 들어가며...문화향수의 즐거움과 봉사의 보람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는 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8년부터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문화자원봉사자교육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각종 문화공간에서 봉사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문화감수성을 증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와 체험 등의 문화예술기초소양교육을 하는 한편, 교육 수료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종 문화공간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문화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보람과 문화향수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문화자원봉사자회는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문화공간에서 활동하는 문화자원봉사자들이 개별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간의 정보와 경험 등을 교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성을 제기 하게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자원봉사자회가 2000년도에 조직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점차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문화자원봉사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II. 문화자원봉사자회 운영사례

1. 목적

- 문화자원봉사자의 결속력강화
- 지속적인 문화정보 및 지식의 축적을 통해 전문문화자원봉사활동을 지향, 문화인력으로 발전시키며,
- 국민들의 문화감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문화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구성: 문화자원봉사자 기초 소양교육을 받은자로 문화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

3. 조직: 임원진(회장, 총무, 운영위원), 활동공간별 팀장, 카페 운영자, 일반회원으로 되어 있다

4. 문화자원봉사자회 활동

1) 문화자원봉사활동공간 및 내용

구분	활동기관	활동내용
1	예술의전당	ARS 전화상담
2	여성사전시관	전시설명 및 안내
3	경찰박물관	전시설명 및 안내
4	농업박물관	전시설명 및 안내
5	한가람미술관	전시설명 및 안내
6	아르코 예술극장	객석안내
7	아르코 예술정보관	프로그램 보조
8	광진문화원	활동보조
9	사랑의문화봉사단	공연활동보조
10	구로아트밸리	공연장 안내
11	열린극장 창동	공연장 안내
12	서울별별가족문화축제(단기)	축제도우미

2) 월례모임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주제에 따라 단순 모임형태가 아닌 문화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문화관련 교육 및 현장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한다.

2007년(주제: 아시아의 축제)

구분	내용	비고
1월	휴강	
2월	2007년 정기총회/영화관람	임원진 선출
3월	일본 축제 1 : 일본축제의 특징과 축제를 통해 드러난 일본문화	일본 공보문화원
4월	일본 축제 2 : 일본 축제의 특징과 축제를 통해 드러난 일본문화	강의
5월	인도 축제 1: 인도축제의 특징과 축제를 통해 드러난 인도축제	광주 인도문화원
6월	인도 축제 2: 인도축제의 특징과 축제를 통해 드러난 인도축제	강의
7월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워크샵	문화자원봉사자 심화과정
8월	휴가	
9월	중국문화체험하기 1	인천 차이나타운
10월	중국문화바로알기	강의
11월	터키의 역사와 문화	강의
12월	파티!!! 나라별 축제 및 문화 느껴보기	송년모임

2008년 (주제: 일상에서 느끼는 문화 :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구분	내용	비고
1월	휴강	
2월	정기총회	영화관람
3월	일상속의 문화 느끼기-박물관1: 운현궁 /북촌코스	운현궁,북촌문화센터,불교미술박물관,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매듭공방,한상수자수박물관
4월	일상속의 문화 느끼기- 박물관2: 북촌/ 삼청동코스	천도교수훈회관,경인미술관,북촌31번지 한옥마을,티벳박물관,종친부,서울교육사료관
5월	일상속의 문화 느끼기- 박물관3 장충동/ 남산코스	남산한옥마을,장춘단,수표교
6월	야유회	회원 단합
7월	문화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왜...문화자원봉사자인가?	강의 및 워크샵
8월	휴가	
9월	일상속의 문화 느끼기-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강의(예정)
10월	일상속의 문화 느끼기- 미술관1	예정
11월	일상속의 문화 느끼기- 미술관2	예정
12월	축제-- 송년모임	예정

Ⅲ. 마무리하면서...

문화자원봉사자회는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기 쉬운 교육을 문화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하고 그 봉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제공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문화자원봉사자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문화자원봉사자회는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해나가고 있는 문화동아리로 즐기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봉사로까지 연결되는 바람직한 문화동아리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동아리의 활성화는 생활 속에서 문화적 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문화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밑 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자원봉사자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원활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전문적인 문화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향후 전 국민의 문화감수능력을 키우는 동력이 될 문화동아리(문화클럽)을 조직하고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생활 속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안

생활 속의 문화활동은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그리고 비전문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단순 예술을 넘어 문화전반의 활동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 국민의 문화감수능력 증진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문화정책들이 나왔으며, 이제는 무엇을 통해 문화감수능력이 증진시킬 수 있는가의 실행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이는 아마도 일반인들의 문화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 즉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클럽들을 발굴하고 지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클럽활동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연결해주어야 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주는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생활 속의 문화활동을 설계해주고 지원해주는 인력의 양산이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본다. 문화활동을 설계해주는 문화코디네이터(가칭)라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촉하게 하며, 현재 원활하게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더 활성화하여 단순히 문화클럽내에서만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로 발전 시키거나..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까지 확대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지역의 필요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코디네이터의 양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문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의 또 다른 문화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문화코디네이터(가칭)만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업무를 문화자원 봉사자라는 준전문가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4.

문화예술생태계의 들꽃 -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양 원모 (경기도 미술관 교육팀장)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에서 기저를 이루고 있는 곳에 자생하는 것이 아마추어 문예동아리들이다. 식물생태계에 빗대면 자그마한 균락을 이루며 피어있는 들꽃들이다. 세월이 바뀌어 지금은 야생화도 주목받고 있듯이 아마추어 문예동아리도 문예진흥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야생화를 채집하여 화훼사업화하려다 도리어 종의 감소를 자초한 시행착오가 있듯이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진흥 정책은 신중하여야 하며, 잘못하면 자생력을 상실하게하고 끝내는 기형적 존재로 화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섬세한 진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 문예동아리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술교육지도와 기획연출 능력이 있는 예술가 또는 예술교육자의 추천 (정보제공)과 매개이며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강사비 지원은 적극적으로 모색해도 좋겠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교육 수혜를 받은 분들은 이들로부터 교습받은 시간만큼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배워서 남주자”라는 작풍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하나인 교육통화 또는 문화통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마추어 문예동아리들이 늘 꿈꾸는 것이 안정적인 연습공간의 확보이다.

저비용 (전기료+난방비)으로 빌려쓸 수 있는 연습공간이 문화기반시설 내에

많이 조성되면 좋겠다. 의정부예술의 전당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이 마련되면 동아리 연습공간을 여러개 만들고 싶어하는데 이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문화기반시설들을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으면 한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문예동아리가 쓸 수 있는 지역의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며 나아가 중개까지 해 준다는데 이것은 문예동아리 후원의 모범적 사례라 할 만 하다.

아마추어 문예동아리도 발표 기회가 있어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데 거리와 공원 등 야외 무대를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음향과 조명 장비를 인력과 함께 대여해 주거나 아니면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개개 발표활동에 필요한 사업예산 일체를 공모하여 제공하여 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자생력을 상실하게 하고, 진흥기금에 의탁하며 정치적 섭외능력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비, 출연료, 팸플렛 제작비 등은 지원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비용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마련하게 하여야 건강한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문예동아리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그물망을 형성하여 서로 품앗이하는 상부상조의 두레 문화전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마추어

미술 동아리 전시에 이웃한 음악동아리가 오픈 행사시 연주를 해 준다든지

연극 동아리 무대 발표시 이웃한 미술 동아리가 무대그림을 제작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름답다. 따라서 문예동아리의 자발적 등록을 통한 매핑과 상호연계를 매개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으며 이같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제공 및 관리를 문예진흥 기관에서 대행해 주면 좋겠다.

지역 내 문예동아리들의 교류와 연계활동을 북돋는 한편 문화자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동아리 네트워크 문화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아리와 동아

리가 연대하여 스스로 훈훈한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문예동아리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마을 문화 창조의 산실이 되어줄 시민문화창조센터 또는 커뮤니티아트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곳에 경험 많고 역량 있는 예술교육자 또는 예술기획자들이 있어 문예동아리들의 필요와 욕구를 들어주고 활로를 상담하며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매개해 줄 수 있기를 꿈꿔본다. 또한 그곳에선 문예동아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다양한 문예강좌와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길 바라며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방과 작업실, 아마추어 문예동아리들의 모임방과 연습공간 그리고 무대가 있어 시와 노래와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지며 풀뿌리 문화자치가 현현하는 것을 보고 싶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섬세하고 자상한 지원 방안을 갖고 아마추어문예동아리들의 성장과 성숙에 앞장서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하고픈 주민 참여형 문예진흥의 본배가 되어주길 기대하여 본다.

□ < 참고자료 >

* 2005년 경기지역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지원 사업 ((경기문화재단))

-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 집행액 3억/ 118개 성인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 지원액 254 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학교 밖 동아리 / 발표비용) // 집행액 2660 만원
/ 25개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지원액 106 만원
- 북부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안 동아리 / 교육비용)//
집행액 1850 만원 / 9개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지원액 205 만원

* 2006년 경기지역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지원 사업

-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지원 // 집행액 3억6천만원/112개 성인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 지원액 321 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학교 밖 동아리 / 발표비용) // 집행액 3850 만원
/ 28개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지원액 137 만원
- 북부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안 동아리 / 교육비용)//
집행액 2400 만원 / 11개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지원액 218 만원

* 2007년 경기지역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지원 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학교 안밖 동아리/교육 · 발표비용)// 집행액 7200 만원
/ 50개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지원액 144 만원

- 청소년 문화기자단 육성 //집행액 3000 만원 / 청소년 문화기자학교 개설 및
기자 38명 배출, 현장취재 및 보도
- 아마추어 공연예술 활성화 (연합예술제 지원)//집행액 2090 만원 / 3건 지원
/ 평균지원액 696 만원
- 권역별 문화예술 지원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특성화된 시민예술학교 또는 문예아카데미 설치
+ 문예동아리 연합예술제 지원) // 집행액 1억 6000만원 / 8개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지원 / 평균지원액 2000 만원

*** 2008년 경기지역 아마추어 문예동아리 지원 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학교 안팎 동아리 /교육 · 발표비용)//집행액 9700 만원
/ 60개 문예동아리 지원 / 평균지원액 161 만원
-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육성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특성화된 시민예술학교 또는 문예아카데미 설치
+ 문예동아리 연합예술제 지원) // 집행액 1억 4600만원 / 7개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지원 / 평균지원액 2085 만원

토론5. 삶과 결합한 예술경영을 위하여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생활 속 문화클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는 건강한 사회의 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해 환영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기운을 뚜렷이 느끼고, 그 중심에 생활과 밀착된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자족적인 활동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의 문화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문화 활동을 진흥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낫게 하고자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욕구들에서 비롯한다고 봅니다.

- 우리의 존재감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고,
- 다양한 주변의 일을 둘러볼 여유를 가짐으로써 생활 속 창의성을 제고(提高)하고,
- 여러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서 사회 전반의 유연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된 요구는 과도한 문화적 형식, 고급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체면치레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의미의 체감으로 이전되는 양상을 대변합니다. 때문에, 생활 속 문화클럽 진흥 정책은 ‘문화클럽’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강조점이 있으며, 문화클럽은 소소한 문화적 생활의 의미를 담는 그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클럽이 이렇게 생활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클럽의 구성 방식이나 촉진 정책들은 문화클럽을 잉태하고 있는 지역현장의 분위기와 지역 구성원들의 특징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계몽의 형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이야기를 수렴하는 구조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는 직장인의 문화클럽 활동도 언급되었습니다. 기업에서 CoP(Communities of Practice) 운영 컨설팅을 경험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직장인의 문화 활동은 직장 문화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를 즉시적이며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개 기업의 문화사회적 참여는 직장인의 문화 활동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가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의 문화 활동을 성과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오늘 거론되고 있는 문화클럽에 관한 비전은 상당한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보다는 문화클럽 활동을 인적 자원을 위한 투자로 여기고 거시적인 로드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장기적으로 전 사회의 인력을 고급화하는 평생 교육의 문제이며,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충전과 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를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문화 정책은 기업 안으로 침투하기보다 직장인들의 여가 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간접 지원하는 양식을 띠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을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들은 호칭 파괴, 직급 파괴, 능력주의, 주 5일제, 가족 친화적 경영 등의 환경적 변화와 함께 간다는 것이고, 제도의 개선, 사회적 분위기 등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분만 정당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추진은 자발성에 기초한 활동의 내용과 요구를 간과하게 만드는 압과 같은 존재고, 사업의 중심에 있는 시민 참여자들의 실망과 빈축을 사 자발적 활동에 대한 동기를 박탈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는 소통구조의 제도적 확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정해진 정책은 행정 체계상 쉽게 수정하기가 어렵는데, 정작 시민의 활동과 요구는 전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활동 내용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역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즉흥성과 임의성이 충분히 수렴되면서도 제도가 원하는 전략적 목표 - 이를테면 문화 공공성의 획득, 문화적 활동의 사회적 교류 등 -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기관이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이 리더십은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뒤를 받쳐주는 리더십이어야 하고, 말하는 리더십이기보다 듣는 리더십이어야 하며, 권위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감의 리더십이어야 할 겁니다. 동시에 이 리더십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클럽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큰 가치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보자기와 같은 리더십이어야 할 겁니다.

문화클럽의 자발성이란 단순히 아마추어리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업이 성취해야 할 전략적 목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화클럽들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사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며, 이러한 역동성은 변화를 추동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들의 활동상의 추이는 면밀히 관찰해야만 합니다. 결국, 사업의 향후 지향점은 이런 변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속의 문화클럽들,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문화민주주의 과정의 체험입니다. 민관협치의 모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모색에 있어 새로운 인식 뿐 아니라, 새로운 소통 구조 역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은 비단 지원받는 아마추어 문화클럽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운영자들과 문화 정책 시스템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화민주주의는 이제부터 민과 관이 모두 배우며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이제 막 그 시작점에 우리는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토론6.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례

이경숙(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장)

1.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목적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은 문화, 예술, 교육을 특성화 시킨 기관으로 특히 문화와 학습을 접목시켜 다양한 교육을 통한 문화 예술을 전문화, 다양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유도 지역문화의 근간을 다짐.
-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층별로 맞춤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로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고자 함.

2.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을 위한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차별적 특성

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문화 칠곡

-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의 기획 확대
 - 최신영화상영(월1회), 문화·기획공연(연4회), 칠곡사랑음악회(연8회)
-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수준 제고
- 계층에 맞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위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업그레이드



나.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접목

-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은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의 접목으로 주민에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특히, 전국에서 칠곡군에서만 운영하는 브랜드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타 지자체 및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칠곡군 문화예술동아리 육성 우수사례

1. 문화환원사업

문화예술동아리 육성과 지역사회 문화 봉사활동

-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문화예술동아리 육성
-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역사회 문화 봉사활동 실시로 지역문화 주도
- 주민주도 배움의 사회 환원 활동으로 배움과 문화 봉사의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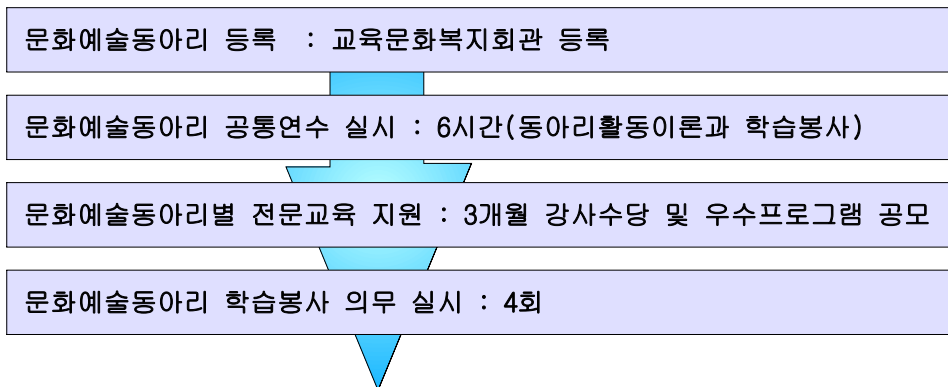
1) 학습동아리 지원

⇒ 문학· 미술· 지역탐구(역사, 문화 등) ·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의 분야에 관한 자율적인 학습을 위해 구성된 정기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

2)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 28개 동아리

동아리 분야	동아리 수	비 고
문학분야	7	글마루, 언령회, 낙동문학회, 느티나무주부독서회, 난설독서회, 꽃자리, 바지랑대
전통문화전승	9	색모아, 은빛한울림, 한사랑, 골매기, 연서회, 자고목연회, 삼학, 칠곡문화원풍물패, 한소리
음악분야	3	미소, 아코디언사랑, 울림회,
댄스스포츠분야	4	학마을댄스동아리, 호이스포츠댄스, 축협댄스동아리, 댄스3060,
봉사활동	2	참사랑회, 손끝사랑
기타	2	동화나무, 그리메, 토화회,

3)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4) 문화예술동아리 학습봉사 사례 : 2008년 1~5월

동아리명	봉사내용	비 고
그리메	사회복지시설 벽화제작	
난설독서회	꿈나무 키우기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읽기 지도봉사)	
댄스3060	경로당, 노인마을, 지역축제등에서 댄스 봉사	
동화나무	동극공연(지역 어린이집에 동극 순회공연)	
삼학(전통무용) 문화원풍물패 한소리(민요반)	지역 사회복지시설 연합 문화공연 실시	
연서회(서예)	상록모자원 공부방 서예 지도	
울림회(기타)	분도노인마을, 장미요양원 등 지역사회복지시설 공연	
자고목연회(전통회화)	어린이 무료 서예교실 운영	
토화회(도자기)	재미있고 즐거운 도자기 빚기(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봉사)	
골매기(풍물패)	지역 사회복지시설 풍물공연, 상록모자원 풍물 지도 봉사	
한사랑회(풍물패)	날외복춤 복지시설 공연	
느티나무 주부독서회	어린이 독서지도	
미소(크로마하프)	지역축제, 행사등 크로마하프 공연	
언령회(시)	쉼터에서 시 낭송회	
축협댄스공연	사회복지시설 댄스공연	
호이스포츠댄스	사회복지시설 댄스공연	

5) 우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사례

① 동화나무

- 2002년 3월 교육문화복지회관 동화구연지도자 과정 이수자로 구성
- 회원 : 15명
- 동화구연지도자 자격 및 아동글쓰기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회원전원 방과후 학교 강사 및 독서교사로 직업적 활동
- 연 2회 지역 어린이집 대상 인형극 공연 : 연 3,000명 관람
- 주부로서 문화예술교사라는 직업과 인형극 공연 봉사등을 자부심 고조

② 토화회

- 2002년 8월 교육문화복지회관 도자기 교육 이수자로 구성
- 회원 : 17명
- 교육문화복지회관에 도자기 시설 구비로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
- 회원전 10회 개최로 지역내 우수한 문화 동아리로 정착
- 매원초등학교 방과후 도자기 무료 강좌로 문화예술교사로서 가능성 모색

③ 풀매기

- 2002년 10월 교육문화복지회관 사물놀이 교육 이수자로 구성
- 회원 : 17명
- 정기적인 사물놀이 교육으로 지속적인 지원
-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왕성한 봉사활동 실시 (5년)
- 상록모자원 시설 아동들에게 무료 사물놀이 지도로 문화예술교사로서 가능성 모색

4.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의 기대효과

- 가.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원으로 지역내 풀뿌리 주민 주도 문화 지속적인 활동 유도
- 나. 지역의 학습동아리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배움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써 학습동아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학습의 기회를 줌으로써 문화양극화 해소
- 다. 교육문화복지회관의 문화, 예술, 교육 기능의 다양한 육성으로 지역문화예술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 라. 전문적인 문화예술학습동아리 육성으로 회원들의 전문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사화로 지역문화발전과 더불어 회원 직업 모색

토론7.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유유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지원팀장)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잠재 문화예술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우리 국민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시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인 문화예술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우리사회 여러 구성원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조되면서 사회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및 소년원학교 수용자 등 다양한 대상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자기 성찰 및 변화를 도모하고 가치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대하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문화예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문화예술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이들간의 열린 소통창구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외계층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2007년부터는 한국문화의집협회와 협력하여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집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 중심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산어촌 및 소도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50여개 문화의집을 이용, 지역주민들의 예술 체험을 위한 동아리 활성화 및 노인·결혼이주여성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문화의집을 찾아서 다양한 예술활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문화의집 실무 담당자 재교육 및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런 맥락에서 생활 속의 문화클럽 또는 동아리 지원사업의 추진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문화예술은 있는 자들만이 향유하는 선망의 대상에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즐기고 향유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최근,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만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예술 관련 동아리(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문화예술을 즐기는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좋은 취지에 시작된 동아리 활동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빠듯한 예산과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 개발과 기획 구상 등 복잡하고도 도전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아리 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술분야의 주요 (잠재)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되어왔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보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의 필요성은 다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뜻을 갖고 자연스럽게 집단을 생성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학습하는 지극히 사적인 활동에 공공재원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는 집단인 동아리는 어떤 대의명분보다는 자기 개발과 문화적 풍요로움 향유, 자아만족 등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영위하기 위해 존립되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명분을 위한 사업 지원보다는 지역사회발전, 사회공헌 활동 등 공공적인 목표를 위한 사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보조금 지원보다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같은 정책적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주민, 지역기관, 지자체가 함께 건강한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기타 의견

-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지원의 범위(기초적인 질문)
- 문화예술교육강사 제도와 연계 가능성(강사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나, 지원 목적은 다름/기능 연마가 아닌 감수성 개발 등 정서적 접근)
- 기업 내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권장(기업 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생성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도 있음. 메세나협의회에서도 관련하여 기업 내 권장하고 있음.)

기존의 문화지원정책은 전문적 수준의 예술활동지원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수지원의 2 유형. 교육진흥원에서는 후자에 많은 기여를 함.

김현주(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업지원팀장)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적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재정안에서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속에서 지원 방식이 다양한하게 전환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이고 있다. 지원의 대상에 대한 생각도 단순히 예술과 작품에서 보다 확장되어 생활속의 문화활동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이라해서 무조건 지원 받아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활성화에 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예회관도 복권기금 예술사업을 통해 5년간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문제의 온상에서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문예회관 사업의 활성화는 예술단체, 지역 관객을 모두 지원하는 간접지원의 대표적 형태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긍정적임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 문예회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어쩌면 오늘 논의되는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문예회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만큼 활발하게는 아니더라도 몇몇 지역문예회관은 이미 이런 활동을 해 오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동아리들은 이렇다 할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없는 지역에서 문예회관 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계에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원”이 그 본래의 뜻과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왔기에 문예회관과 연관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제기해 본다.

지역 현황 조사와 의견 청취

문예회관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출장의 기회가 많은데, 가서 드는 생각이 정말 와서 보고나니 듣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며칠전에도 울진문예회관에 다녀왔는데, 울진문예회관은 인구9천명의 후포면에 입지하고 있다. 울진읍에서도 한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500여석이 채 안되는 아담한 규모였지만 과연 이곳에 관객이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공연이 시작되자 삼삼오오 몰려든 관객은 450명을 넘어섰고, 공연에 정말 열광적으로 호응해 주었는데, 그날은 너무 더워 관객이 적었다고 한다. 알고보니 이 지역은 “면” 단위이긴 하지만 대부분 주민이 어업과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지역보다는 소득수준이 높다고 한다. 이렇듯 서울에 앉아서 생각하는 지역과 실제 지역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아마 동아리 활동에 대한 현실도 매우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 본 후 지원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에서도 문화클럽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였다. 아마, 지금 지역별로 동아리 현황을 조사한다고 하면 파악이 되는 곳도 있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이 자료 부터가 실태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현황 파악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역으로 전혀 파악 조차 안된 지역에 동아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사업화 하여 진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 대상 범위의 명확화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청취하다보면 현실이 다양한만큼 100이면 100 다양한 요구를 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동아리 자체의 활동도 그 범위는 무수히 다양하다.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사업이 갖는 대상 범위와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이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예회관은 정책에 적극 대처하며 사업을 설계하므로 사업초기 명확한 방향이 제시된다면 좋은 사업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앞서 김세훈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업이 설계되고 실시 단계에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리라 본다. 문예회관만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해보더라도,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늘 “갑”의 입장이었던지라 사업비는 신청해서 받아서 각자 폭넓게 해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본래의 취지가 문예회관 사업 목적과 다르지 않으므로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사업수행에서의 역할 분담

사실 문예회관은 어찌보면 지역에서의 사업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직접적인 사업수행은 각 동아리가 하게 되는 것일텐데, 여기서 중앙의 사업관리주체와 운영주체, 최종사업수행자간의 역할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운영주체에 너무 많은 역할이 떠넘겨져서도, 또 단순히 사업을 위탁수행해서도 안될것이다, 적절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관한 조율과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몇가지 언급한 사항들은 일반적이기도하고 이미 발제자께서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문예회관에 한정하여 보다 중요한 사항을 한번더 강조하는 의미로 되짚어 보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작은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때문에 우려보다는 큰 기대로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이 시행되고, 그 성과로 각자의 삶속에 문화예술행위를 누리며 사는 생활이 가능해 지는 그날을 그려본다.

토론9.

생활속의 문화활동 지원방안의 의미에 대하여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대표)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최근의 미국산소고기문제가 확산되었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통의 부재’, ‘신뢰의 상실’이란 말이 정치적 입장차를 떠나 가장 폭넓게 거론되고 있는 말인것 같습니다. 사태의 해법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많은 요구와 처방들이 시도되고 때로는 그것이 더 많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한 해법은 우리 사회에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진 않겠지만, 저는 바로 이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갖는 중요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문화동아리 내지 문화클럽활동이 갖는 결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로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푸트남은 이탈리아사회의 남북부간 사회발전격차의 원인에 대한 25년에 걸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특정 사회의 정치경제적 사회발전정도의 차이가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스포츠클럽, 문화동아리, 상호부조모임과 같은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들이 활성화된 지역이 전통적인 카톨릭성당과 같이 위계적이고 구조화된 조직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비해 민주화정도나 경제발전정도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이야 이미 널리 공인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에까지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생활속 문화클럽 활성화 정책”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실정에 맞게 점검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전문문화예술단체중심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문화취약계층 지원정책이 갖는 일면성을 탈피하여 “일상을 지향하고”, “지역이나 직장 등에서의 공동체성 강화”를 꾀하며,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시민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는 생활속 문화활동지원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가서 같은 문화활동 지원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 등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의 핵심은 ‘몇 개의 문화클럽이 조성되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한 환경을 얼마나 많은 문화동아리들이 활용하였는가’

에 있다”라고 한 것은 기존의 행정중심, 성과중심의 추진방식을 벗어나 문화활동주체들의 자율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은 추진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공간지원, 교육지원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을 택하고 지역사회공헌과 같은 공동체성 지향을 결합시키고 있는 점도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모든 문화활동 지원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민간역량 강화에 기여”라는 일관된 관점 하에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 점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의 정책기획자들이 현장의 세세한 문제를 다 잘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일일이 규명하고 규정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가능한한 권한위임, 그리고 자율적 환경과 여건 마련이 중요하며 주체들 상호간의 학습을 통한 “집단지성”의 창조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정책은 매우 훌륭한 벤치마킹대상이고 혹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생활속 문화클럽활성화정책’의 살아 숨쉬는 교재가 아닐 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일관된 철학과 종합적 비전이 있는 지역문화정책이고 지역의 특성과 현장실천에 기반하려는 정책이며, 지역공동체성 강화와 민간 자발적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민들의 생활영역에서 전개되는 문화활동이 갖는 다면성과 관련 분야와의 협력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동네’라고 하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의 특성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공간이기도 하고 생활정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사적인 욕구와 관심에서 출발하여 공공의 문제에 접근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오랫동안 풀뿌리시민운동과 주민자치센터에 관련을 맺고 활동해온 저의 경험에 바탕해 볼 때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동아리들은 그 자체가 평생학습의 기초단위이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으로 연결되며 주민자치를 위한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생활속 문화활동 지원정책’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으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평생학습, 주민자치, 지역복지, 마을만들기 등 제반 관련된 분야와의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Top-Down이 아닌 Bottom-Up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op-Down은 자칫 지역현장을 정책기획자들의 주관적 의지나 관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각 영역간의 경쟁이나 중복을 몰고 옴으로써 오히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속 문화활동활성화정책’은 이제까지의 문화지원정책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롭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마련된 정책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석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전자우편 주소
사회자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soonbs78@hanmail.net
발제자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shkim@kcti.re.kr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부장	parktutor@naver.com
토론자 (10명)	김현주	전국문화예술평연합회 사업지원팀팀장	khj@sac.or.kr
	전수환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	poetion@unitel.co.kr
	이경숙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관장	dream789@hanmail.net
	유유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지원팀장	emlew@arte.or.kr
	전고필	광주북구 문화의집 상임위원	tournote@chol.com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회장	cpc@partner.or.kr
	양원모	경기도 미술관 교육팀장	ramo@ggcf.or.kr
	김혁수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winhs@naver.com
	이경직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anna@mcst.go.kr
	김응진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기획실장	geenee62@nate.com
관계자 (7명)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과장	lh2358@mcst.go.kr
	정창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직원	chayjung@mcst.go.kr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협력사업본부장	hsyang@arko.or.kr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영팀장	sksong@arko.or.kr
	이정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운영 차장	jmlee@arko.or.kr
	김선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 평가담당	swkim@arko.or.kr
	김유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 홍보담당	yoorang@arko.or.kr

<MEMO>

<MEMO>

<MEMO>

<MEMO>